

'우습자기' 새문화 상품 예고

순창군, 전통 자기에 피터 오 '팝아트 기법' 가미... 채널 A '도시어부' 첫 노출

순창군이 전통적인 자기에 현대의 옷을 입힌 '우습자기'를 선보이며 순창 고추장을 잇는 새로운 문화상품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순창 '우습자기'는 지난달 25일 채널 A 대표 프로그램인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삼진강 쏘기터전에 첫 노출을 시작으로, KBS1 일일드라마인 '여름아 부탁해'에서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우습자기는 청자기능보유자인 고정(古正) 권운주 선생의 전통적인 자기에 팝아티스트인 피터 오(Peter Oh) 작가의 팝아트 기법을 가미해 순창만의 새로운 도자기로 탄생했다.

우습자기는 '웃음을 통해 내 주변의 이웃들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라는 피터 오 작가의 인생철학에서 시작됐다. 또한 습자가 한자인 합(合)자와 유사해서 두 작가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서 만들어낸 하나의 작품을 뜻하는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이 하나로 합쳐지라는 마음도 담겨져 있다.

권운주 선생의 초벌작업으로 나온 자기는 피터 오의 스토리 기법, 흙 뿌리기, 그리는 작업 등을 더해 재벌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작품인 '우습



최근 사람들의 시선을 자국하고 있는 순창 '우습자기'.

자기'로 나온다. 이처럼 두 작가의 마음, 그리고 자연의 섭리가 더해져 탄생한 완벽한 작품들이 소비자들이 품에 전달되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욱 크다.

현재 군은 지역내 강천산휴게소, 순창 발효소스도굴 등 6곳에 우습자기를 납품하며 판매망 확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공항 면세점과 백화점 등 대형 유통마켓에도 업체 관계자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미래 성공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또한 순창 용기체험관은 청자의 은은함 매력과 더불어 화려함으로 뽑낸 우습자기로 다시금 체험객들의 시선을 모으며, 홍보역할에 일등공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한편 피터 오의 올 하반기 유럽 전시회에 순창 우습자기를 전시할 예정이어서, 대한민국을 넘어 유럽으로까지 인지도 확장에 나서며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명랑시장'으로 흥겨운 한마당

28일 순창 향토회관에서 무대... 선착순 입장

순창군이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는 28일 저녁 7시 순창향토회관에서 창작 뮤지컬 '명랑시장'을 군민들에게 선보인다. 공연은 남녀노소 누구나 관람가능하며, 당일 선착순으로 입장할 계획이다.



순창,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80여명 선착순 모집

이번에 선보이는 명랑시장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에 순창군이 선정됨에 따라, 문화가 있는 날 주간인 오는 28일에 열린다.

명랑시장은 전통시장의 온기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를 배경으로 주인공 효녀 유정이 시장에서 일하며, 시장사람들의 모습을 명랑하고 유쾌하게 그려낸 창작극이다.

극 중 아버지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효녀 유정의 모습을 통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 70회 가까운 공연을 소화하고 있는 경기도립극단이 공연을 주관할 예정으로 순창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일 것

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연극을 기반으로 노래와 춤까지 가미해 지루할 틈 없는 공연 진행으로 순창군민들의 신명나는 화요일 저녁을 책임질 예정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이번 공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물론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준비했다"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순창군은 오는 28일 명랑시장을 시작으로 매일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으로, 6월에는 국악과 재즈를 접목한 창작국악인 송소희와 함께하는 '국악, Jazz 樂 락'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80여명 선착순 모집

순창군이 ICT 기술을 활용해 만성질환 위험군에 놓인 군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참여자 80여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만성질환 위험군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과 스마트 밴드를 활용,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해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프로그램이다.

국가공모사업인 이 사업에 순창군이 지난해 12월 최종선정되며, 올해 전국 100여개 시범보건소 운영기관에 순창군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 올 상반기 전담인력교육과 사업준비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 7월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 가동에 들어갈 계획으로, 올 6월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대상자는 순창군에 거주하거나 직장에 재직하는 성인으로, 5가지 건강요인(혈압, 혈당, 허리둘레,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중 1개 이상 위험요인으로 판정된 사람인 경우에 참여가능하다. 단, 만성질환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참여가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계(☎063-650-5245)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임실군은 청소년이 흡연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조기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나섰다.

군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15일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관내12개교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 및 어린이에게 금연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흡연예방 교육과 공연, 금연 폴던벨 퀴즈대회, 레크리에이션 등 알찬 내용으로 구성했다.

담배의 실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변화와 유도 및 흡연에 대한 호기심을 억제하고, 조기교육을 통한 흡연방지와 함께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흡연예방 인형극을 통해 아이들이 더 나아가 부모뿐만 아니라 친척 및 이웃에게까지 금연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동충동주민센터는 20일부터 22일까지 2층 회의실에서 동충동 노인사회활동 참여자 5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스트레스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남원 동충동, 노인사회활동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남원시 동충동주민센터(동장 조환익)는 20일부터 22일까지 2층 회의실에서 동충동 노인사회활동 참여자 5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더불어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년기 신체·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스 예방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남원시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 소속 강사님을 모시고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다소 지루할 수 있는 강의를 신나는 노래와 율동,

간단한 손동작 게임을 하고, 간담회를 통한 고충상담과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점심식사를 대접해 참여자들을 따뜻하게 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해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월부터 10월 까지 9개월간 월3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월 27만원의 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서부산림청, 산촌

생태마을 가꾸기 캠페인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옥)은 지난 19일 지리산 남원 원천산촌생태마을에서 청 직원과 마을 주민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촌생태마을가꾸기 행사를 진행했다.

원천 산촌생태마을은 산림청에서 추진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산촌문화관, 취미 가공 체험장 등 기반시설이 조성되었으며, 지리산산선둘레길의 시작점으로 인근 지리산 뱀사골 등과 연계해 다양한 산촌자원을 보유한 아름다운 마을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깨끗한 농업, 농촌 만들기 캠페인'과 함께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의 이유로 다소 접근성이 어려운 산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 주변 가꾸기, 정화활동 및 산림휴양문화 프로그램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임실군, 내달 7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임실군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군은 20일부터 내달 7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각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이번 사업은 '임실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대상규모는 조기폐차 300여대다. 신청 기간 내에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및 차량 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다.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홈페이지와 문의(1833-7435)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일 기준 임실군에 연속하여 2년 이상 등록 되어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된 차량 중에서 비상 저감 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유예중인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중 2000년 이전 제작·출고된 차량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일반차량은 오래된 연식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한 우선지원 30%, 사회적 공헌·약자 20%, 일반차량 50% 순서로 우선 배정받을 수 있으며, 우선지원 및 사회적 공헌·약자가 배정물량에 미달 시 일반지원에 포함되어 신청된다.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원이고 저소득층일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가액의 10% 추가 지원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